

기축년 동안거 해제 범위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

곱음은 끈음을 감추지 못 한다

흥화존장(興化存獎) 선사에게 후당(後唐)의 장종(莊宗)황제가 물었습니다.

“집이 중원을 평정하고 보물을 한 개 얻었는데, 아무도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폐하의 보물을 잠깐 보여 주소서.”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건(幘頭巾)의 끈을 들어 보였더니 선사가 말했습니다.

“군왕의 보물을 누가 감히 흥정하겠습니까?”



이 그 짐짜서 버리고서 밖으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보물을 보여 달라는 흥화 선사의 질문에 장종황제는 두 손으로 복두건(幘頭巾)의 끈을 들어보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선사는 ‘어는 누구도 군왕의 보물을 흥정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문에서 흥화 선사는 황제의 공부 경지를 긍정한 것입니까? 긍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인정했다면 흥화의 안목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흥화의 허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달대 사자가 양나라 무제를 찾았던 것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염관(鹽官) 선사와 선종(宣宗)임금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은 함께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와 달이 때를 맞추어 뜨고 진다면 광채가 있는 곳의 파스한 바람결은 꽃과 나무를 서로 감화시킵니다. 이처럼 인왕(人王)과 법왕(法王)이 서로 만날 때엔 서로의 위치에서 결맞는 문답이

있어야 제격인 법입니다. 어쨌거나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경술하게 남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송산혜안(松山慧安) 선사는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를 묻는 남자에게 ‘자신의 서래의(西來意)는 묻지 않고 왜 남의 서래의(西來意)만 묻고 있는냐?’고 도리어 힐난했던 것입니다. 마조선사 역시 “자기 집에 있는 보물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서 더욱

진불엄위(眞不揜飾)하고 곡불장직(曲不藏直)이라 참은 것짓을 가리지 않고 곱음은 끈음을 감추지 못한다.

태고종 중정
해초 스님

적시면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네

入山何所爲(입산하소위)
永斷世俗事(영단세속사)
現令解三冬(현금해삼동)
且問何處去(차문하처거)
입산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세속의 인연 아주 끊었겠지
이제 동안거 해제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지구촌 곳곳에서 추위를 피해 숨어들었던 풀꽃들이 피어나 나지막이 불어대는 영산회사의 피리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구석구석 살펴보고 울조리지 못하는 풀꽃이 있거든 자비의 샘물을 아끼지 말고 뿌려 주십시오. 태고(太古)소리 널리 퍼지게 하십시오. 그 소리 듣고 넓디 넓은 자비(慈悲)로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보일 것입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풀꽃생명이 보일 것입니다.

本來出紅塵(본래출홍진)
宜居與世人(의거여세인)
非好滌泥裏(비호탈니리)
不惡青山水(불오청산수)
본디 세속에서 왔으니
마땅히 사람 속에 살아야지
진흙 속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골 물 싫어하지 않는다네.

타래 끊어내듯 끊어버리고 더 이상 번뇌의 마진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담금질하여 진금을 찾아내는 연금(鍊金)을 한 것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 세상을 맞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바람이 어느덧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음을 여러분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몹시도 추웠던 지난 겨울 내내 조계산 대장군봉 아래서 천고의 가치를 찾아 여러분은 차디차게 얼어 버린 구슬을 녹였습니다. 풀어오르는 세속 일에 대한 미련을 영긴 실

‘오직 할 뿐’ 그 마음으로 수행

국제선원 무상사 해제 현장... 영·한·러·중 4개 언어 공안집 마련

화두참구와 만행, 그 끝은 어디일까? 깨달음은 말지 않은데 수행의 길은 끝이 없었다. 지난 겨울, 전국의 산사에서는 수행자들의 용맹정진 열기가 겨울 추위를 무색케 했다. 3개월의 안거 동안 무겁게 내려져있던 빗장이 열렸다. 100일간 동안거의 끝, 세상을 도량 삼아 만행을 떠나는 새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해제를 앞둔 2월 25일 충남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수행현장이 공개됐다. 봄비가 대지를 깨우고 있었다. 혹독했던 추위가 한 순간에 풀렸지만 무상사 선방에는 수행자들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무상사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던 송산 스님(1927~2004·前 화계사 조실)이 선택한 터에 전법제자 대봉 스님이 불사한 국제선원이다. 무상사에는 내·외국인, 승려, 수녀, 일반 재가자들의 수행 공간으로 한국의 여느 선원과 같이 해마다 2번 안거가 진행된다.

수행정진은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다. 종교도 국적도 초월한 곳이 무상사다. 불자라면 100% 불자로 선수행을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100% 기독교인으로 선수행을 한다는 것이 이곳의 기본 가르침이다.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올해 개산 10주년을 맞이하는 무상사는 반듯한 사격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 선원동, 요사채를 비롯 최근에는 산신각도 지었다. 하지만 10년 전과 지금, 무상사 대중의 수행 정진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지도하고 ‘나란 누구인가’의 화두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모를 뿐’인 것이다.

계룡산의 특별한 기운은 외국인에게도 유명하다. 한번 이곳을 왔다가 국내의 출·재가 수행자들은 무상사의 특별한 기운과 한국인에게 느껴지는 정감을 따라 매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는 스님 11명, 재가자 내·외국인 재가불자 70여 명이 동안

거에 참여했다. 동안거의 하루는 새벽 3시 도량석으로 시작된다. 한국 전통 선방과 다를 것이 없었다.

매일 좌선 10여 시간, 108배, 아침예불, 차담이 진행됐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선문답 시간이 진행됐다. 일요일 한차례 대봉 스님의 법문시간도 마련됐다. 주말에는 주말 수행 정진에 참가하는 수행자도 함께했다.

수행기간에는 엄격한 규칙도 적용됐다. 출·재가자가 함께하고 여러 국가에서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선방의 규칙이 엄격하듯 무상사도 마찬가지다. 성도 재일을 앞둔 1월 15~21일에는 집

집 없는 깨끗한 자세로 대담을 이어갔다.

“만약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 결제와 해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제와 해제는 다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것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안거를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나 자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수행자들이 모이기에 선문답 시간은 재미난 시간이라고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를 비롯해 체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스페인, 폴란드 등 송산 스님 때부터 형성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국가에서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대진 스님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도 못하는 러시아·중국인 등에게는 별도의 통역자가 필요하다. 통역을 해도 서로 뜻을 주고받기 위한 소통의 과정 자체도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상사 선문답 시간은 유난히 길다. 영어, 한국, 러시아, 중국어 공안집을 마련해 놓고 외국인들에게 참선 지도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영어강사 스티븐 데본 포트(41)씨는 올해 네 번째 안거에 동참했다. 스티븐은 주지스님에게 “법은 왜 먹는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그는 “수행을 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맑은 정신이 드는 것과 같다”며 “가시적인 효과로는 선택의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력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에서 온 베라 흐루쇼바(48)씨는 체코에서 선원운영도 했다. 5년째 선수행을 하러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과 함께한다는 것과 한국 선방의 특유의 기운”이라고 설명했다.

대봉 스님은 안거 이후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러 떠난다. 3주간은 미국에서, 2주간은 유럽에서, 그 후 1주일은 러시아 선원에서 참선지도와 함께 봉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이상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신용상인(신용의가수)
■재질: 순금(순금999.9)
■무늬: 장미꽃, 구름문양
■높이: 45cm
■중량: 1.5kg
■판형: 30cm
■무늬: 기 25kg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륵대(윤장대)

법륵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윤장대 기구입니다

법륵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륵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윤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륵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륵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륵대입니다.

법륵대 예약 대축제
전사지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장미, 봉축, 백중, 동지) 나누어 지출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산)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9-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